

# 9월의 사양관리 요점

입 병 규

## 1. 날 씨

무더운 여름 날씨를 지속시켜 오던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이달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급격히 약화되는 한편 대륙성 고기압이 차츰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때로는 광범위한 기압골이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많은 비를 내리는 늦장마로 인한 피해도 예상되며 또한 이달에는 태풍주의보 및

경보가 가장 많이 발표되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상대에서 발표되는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여 불의의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

이달의 기온분포는 표 1과 같으며 특히 우세한 이동성 고기압 중심부에 들어 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상당히 하강하며 하순부터는 대관령지방에서는 첫서리와 첫얼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

〈표 1〉 이달의 기온(°C)과 상대습도(%)

지	역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기온의최대차	평균 상대습도
춘	천	19.5	25.4	13.6	27.0	7.7	17.3	—
강	능	19.7	24.6	15.8	28.4	10.3	13.7	76
서	울	20.3	26.1	15.7	28.4	10.4	14.5	73
수	원	19.9	25.1	14.6	29.9	7.9	17.1	—
대	구	20.5	25.9	16.2	31.3	9.6	18.0	76
진	주	20.6	26.3	16.0	32.3	9.5	16.0	79
광	주	20.9	26.4	16.7	32.3	9.5	16.4	80
부	산	21.6	25.8	18.7	30.2	13.8	10.4	74
제	주	21.7	25.6	18.7	31.2	14.0	12.6	79
서	귀	23.3	26.9	19.6	30.2	13.3	12.9	—

일조시간도 상당히 단축되어 이달 하순경에는 채 12시간도 못미친다.

## 2. 계사내의 환경 개선

무더운 여름날씨를 겨우 이겨낸 산란계는 아주 적은 스트레스에도 환우 또는 휴산을 하기 때문에 계사내의 건조와 환기를 적절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환기는 될 수 있는 한 기온이 높은 낮에 충분히 시켜주고 기온이 낮아지는 밤에는 환기장을 적당히 닫아서 계사내 기온의 일교차를 최소한도로 좁혀준다. 만일 계사내의 환기불량 및 사내 기온의 심한 일교차가 며칠 계속되면 뜻하지 않은 호흡기 질환의 발생으로 고전을 면치 못한다.

특히 개방식 계사인 경우는 계사의 일부 측벽에 비닐막을 치든가 늘어뜨려 적절히 조절

하여 불시의 기상조건에 대비한다. 오히려 혹서기(酷暑期)를 잘 이겨낸 산란계나 부로일리가 서늘한 이달로 접어들면서 여러가지 생산력을 저하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예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향은 무엇보다도 정신상태의 해이에서 오는 수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3. 소홀하기 쉬운 사료 취급

양계 경영에 있어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이미 상식화된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누구나가 등한히 여기기 쉬운 것이 사료의 취급법이다. 특히 사료의 수송 및 보관 중에 비를 맞추든가 습기가 차면 쉽게 변질되고 변질된 사료를 닭에 먹이면 중독(中毒)을 일으킨다.

또한 배합된 사료는 기온이 높은 계절에는 습기가 없는 곳이라도 너무 높게 쌓아 놓든가 너무 오래 보관해 두면 밀부분의 포대는 굳어지기 쉽고 기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높게 쌓아 두지 말고 제조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되지 않도록 사료를 구입할 것이며 좀 더 오랫동안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번 옮겨 쌓되 밑에 있던 포대를 위로, 위의 것은 밑으로 교체한다.

한편 급이기의 형태·크기·배치방법 및 개수라든가 사료주는 방법 및 주는 양을 소홀히 생각하여 의외로 많은 사료 낭비를 가져오는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직접적으로 사료비를 더하게 함은 물론이러니와 1일 1수당 사료 섭취량을 오산하게 되면 닭의 건강상태를 그르치고 나아가서는 그 이상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 4. 점 등

이달로 접어들면서 일조시간의 단축으로 자연 광선으로는 체란계의 최저 점등시간인 14시간보다 월초에는 약 1시간, 월말에는 2시간 이상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점등을 하여 체란계는 계획에 차질없는 점등을 할 것은 물론 점등을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 체란계는 늦어도 이날부터는 최소한 14시간의 밝은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①새벽에만 ②새벽과 저녁에 ③저녁에만 점등을 하지 않으면 소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경영상의 손실을 가져온다.

#### 5. 강제 환우의 준비

체란계인 경우에는 울·아웃시킬 때까지 지시된 방법에 의하여 점등을 하여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마택병 등 초산 직전의 극심한 피해로 2년째에 들어가는 산란계의 강제 환우는 체란양제 경영면에서 유리할

때가 있다고 본다. 특히 금년 가을부터는 많은 체란입자가 강제환우의 방법을 적용하리라 본다.

강제 환우는 절수 절식법인 경우 대개 10월 초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 성적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 10월초부터 강제 환우를 시작할 경우에 앞서 대상계는 늦어도 9월초부터는 점등시간을 최대한으로 연장시키고 계군중에서 허약한 것, 과산계 준비기간에 환우하는 것 등은 9월 말까지 계속 도태해 나가고 능력이 우수하고 강건한 것만 남김으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강제 환우를 마칠 수 있게 한다.

심한 카니발리즘의 미연 방지를 위해 부족된 급이기와 급수기의 보충 또는 계사의 밝은 부분을 가려줄 따대나 가마니 등의 준비를 미리미리 하여 둔다.

#### 6. 정확한 예방접종

금년들어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양계업계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양계업자는 예방약 탓에 앞서 보다 정확한 예방접종을 해야 하겠다. 예컨대 생독백신인 경우 불합리한 환경, 기생충, 기타 질병이 있는 병아리에 접종할 때 면역효과가 불량함은 물론 때로는 호흡기 질환의 발생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① 백신의 수송 및 보관시에는 규정된 저온을 유지할 것이며 특히 여름철에는 아이스 박스를 꼭 사용한다.

② 특히 계두예방접종 전에는 환경을 좋게 하고, 구충 및 폭서독 예방약 투여를 하고 접종 전후 3일간은 항생제를 투여한다.

③ 예방약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가까운 것은 사용을 금하는 것이 좋겠다.

④ 예방약을 어느 것이나 1회 접종으로 100%의 면역효과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므로 적절한 간격으로 재접종하는 것이 좋다.